2022년 가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생활함

메시지 4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하나님-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비결을 배움

성경: 엡 4:20-21, 빌 1:8, 19-21 상, 2:5, 12-16, 3:7-10, 13-14, 20-21, 4:12-13

I.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이다 — 엡 4:21.

- A.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는 사복음서 기록된 예수님의 생활의 실지 상태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삶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의 반복인 삶이다 — 마 3:15-17, 17:5, 눅 3:22, 고후 5:9, 히 13:21, 요일 3:22-24.
- B. 그리스도의 체험에서 그분을 체험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사실 때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분의 삶을 우리 안에서 반복하신다 — 영한 동변 찬송가, 403 장.
- C.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살아야 할 방식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가 그분의 많은 지체들 안에 복사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들은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살 수 있다 — 요 14:19.

II. 주님의 하나님-사람 생활은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하나의 원형을 조성했다. 이 원형은 믿는 이들 안의 하나님-사람을 재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 롬 8:29, 벧전 2:21.

- A. 원래 그러한 삶은 한 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삶이 구속받고 거듭나고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 — 벧전 1:18, 21, 23, 요일 5:11-12.
- B.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사람의 복사본이 되는 것이다(벧전 2:21), 하나님-사람들로서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사람들로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은 신성하고 비밀해야 한다(요일 2:6, 3:1, 4:6 상, 15, 17 하, 빌 1:20 하-21 상).
- C.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온전하게 된 하나님-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이다. 그들은 참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들이다. 그분의 속성들은 그들의 미덕들을 통해 표현된다.

III.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하는 비결, 곧 모든 일과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비결을 배우는 본이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 빌 4:12, 엡 4:20-21, 딤후 1:16.

- A. 사람을 목양하는 최상의 길인 보살피고 보양하는 것은 그들에게 합당한 본을 주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를 사는 것으로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을 먹였다 — 딤후 1:16, 살전 2:1-12, 고후 1:23-2:14, 11:28-29, 고전 9:22, 행 20:28.
 - 1.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살았다. 그들이 복음을 공급한 것은 다만 말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 성령 안에 있고 믿음의 확신 안에 있는 삶에 의한 것이었다 —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 살전 1:5.
 - 2.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길이고 사람이 주님의 일이다.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이 우리가 하는 일의 어떠함이다 — 요 5:19, 6:57, 빌 1:19-26, 행 20:18-35, 마 7:17-18, 12:33-37.
- B. 바울은 하나님을 주입 받아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을 비추어 내었다. 새 언약의 사역은 그 영의 사역, 의의 사역, 화목의 사역이다 — 고후 3:18, 4:1, 3:6, 8-9, 5:18-20.

- IV. 바울은 오랫동안 감금된 채 항해를 계속할 때 가장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최고 수준의 인간 미덕을 지닌 완전히 위엄 있는 삶을 살았다 — 행 27:22, 24-25, 28:3-6, 8-9.**
- A. 바울은 항해 중에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했다. 바울은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살았다 — 빌 1:19-21 상, 엡 6:19-20, 행 16:7, 요 7:37-39 상.
 - B.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하게 부요해진 인성 안에서 또다시 이 땅에 사시는 것이었다!
 - C. 이것은 복음서들에서 사셨던, 놀랍고 탁월하고 비밀한 하나님-사람께서 그분의 많은 지체 중 한 사람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사시는 것이었다!
 - D. 이 사람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증인이었다!
- V. 하나님-사람의 삶을 사는 본인 바울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간직해야 한다 — 고후 5:9, 히 11:5-6, 빌 4:4.**
- A.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한다 — 히 13:15, 시 119:164, 롬 14:17-18, 비교 고전 12:13, 시 116:12-13.
 - B. “나는 기쁨을 간직하고 있으니 부디 염려하지 마십시오. 처형의 건강을 잘 돌보시기 바라며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1972년 4월 22일에 워치만 니 형제님께서 처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 비교 레 1:9, 6:10.
- VI. 하나님-사람의 삶을 사는 본인 바울을 따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 빌 1:8.**
- A. 그리스도의 내적 존재, 곧 그분의 내면적인 애정은 전적으로 그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인 믿는 이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 엡 5:25, 30.
 - B. 우리는 교회와 모든 믿는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곧 그분의 내면적인 애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한다 — 고후 12:15, 빌 2:19-21.
- VII. 하나님-사람의 삶을 사는 본인 바울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취해야 한다 — 빌 1:19-21, 24-25.**
- A.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바울 안에서 사셨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활이 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살았다 — 갈 2:20, 6:17.
 - B. 바울은 복합적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을 누렸다. 이 누림은 몸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봉사를 위한 것이다 — 시 133 편.
- VIII. 하나님-사람의 삶을 사는 본인 바울을 따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취해야 한다 — 빌 2:5.**
- A.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길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다 — 고전 2:16, 엡 4:23, 롬 8:6, 시 119:105, 130.
 - B. 성경의 빛이 우리의 생각을 관통하도록 허락해 드릴수록 노예-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생각이 더욱더 우리의 생각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 롬 12:2-3, 막 10:45.
- IX. 하나님-사람의 삶을 사는 본인 바울을 따를 때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밝히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해야 한다 — 빌 2:12-16.**
- A.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신다.
 - B.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은 그분을 살아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적용하고 제시하며 제공하는 것이다 — 행 5:20, 마 5:16.
- X. 하나님-사람의 삶을 사는 본인 바울을 따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기를 열망해야 한다 — 빌 3:7-10.**
- A. 우리는 바울과 하나 되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인 그리스도를 얻고 획득해야 한다.

B. 바울은 자신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잠기고 그리스도로 적셔짐으로써 자신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열망했다.

XI. 하나님-사람의 삶을 사는 본인 바울을 따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내는 의로 취해야 한다 — 빌 3:9.

A. 바울은 자신의 의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기를 원했다.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초월한 상태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

B. 이 시대에 자신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살아 내는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결혼 잔치에서 그분의 신부가 될 것이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이다 — 계 19:8, 3:18.

XII. 하나님-사람의 삶을 사는 본인 바울을 따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취해야 한다 — 빌 3:13-14.

A.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날마다 우리 앞에 계시는 광대한 미지의 영역이신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B. 우리는 우리의 쫓대를 향하여, 즉 그리스도 최고도로 누리고 얻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XIII. 하나님-사람의 삶을 사는 본인 바울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의 미덕들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 빌 4:8.

A. 그리스도는 참되시며, 장중하시며, 순수하시며, 사랑스러우시며, 평판이 좋은 분이시다. 그분은 칭찬할 만한 이러한 미덕들의 실재이시다.

B. 우리가 우리의 내용이신 그분을 체험하기 위해 그분을 추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미덕들의 실재가 되실 것이다 — 고후 2:15, 3:3.

XIV. 하나님-사람의 삶을 사는 본인 바울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의 비결이신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 빌 4:11-12.

A.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에서도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B.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주님과 대화하고, 우리의 만족의 비결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 빌 4:6-7.

XV. 하나님-사람의 삶을 사는 본인 바울을 따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능력으로 취해야 한다 — 빌 4:13.

A. 한 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른 면에서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 요 15:5.

B. 우리 속에 계시는 발전기와 같으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분을 살고 그분을 확대하고 쫓대이신 그분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신다 — 고전 1:24, 엡 1:19-23.

XVI. 하나님-사람의 삶을 사는 본인 바울을 따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대로 취해야 한다 — 빌 3:20-21.

A. 악한 노예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했다 — 마 24:45-51.

B.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이들은 의의 면류관이자 셋별이신 그분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 딤후 4:8, 계 2:28.

XVII. 하나님-사람의 단체적인 생활, 곧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생활은 이 시대를 끝내고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와 왕국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사람들과 함께 땅을 차지하시고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도록 할 것이다 — 계 11:15, 20:6.